

문화전당, 5월단체에 110억 손배소 검토

옛 도청 보존 갈등 공사 지연 2016년 공사업체 110억 배상
시효 5개월 앞 구상권 소송 불가피... 지역사회 논란 예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측이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110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송)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정부기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지만 5월 단체와 정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3면>

29일 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전당 측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에게 지난 2016년 1월께 110억원을 물려줬다. 이들 4개 업체는 당시 문화전당을 상대로 '공기 지연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 금액은 5월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지난 200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공사현장을 점거농성하

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포함된 옛 도청별관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항전거점이었지만 철거될 예정이었다.

5월 단체들은 장기농성을 통해 별관을 보존시켰다. 대림산업 등은 점거농성이 진행된 2년여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인건비, 관리비용 등 1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림측이 2015년 일부 승소함에 따라 110억원으로 배상금이 정해졌다.

당시 문화전당 측은 승소 여부 불투명한 데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판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 2016년 1월 업체에 11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화전당은 막대한 국고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 110억원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5월 단체와 관련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구상권이란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 등에게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화전당측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는 오는 2019년 1월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6일까지 남은 5개월 안에 청구권(손해배상청구)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전당 측은 채권소멸 시효가 임박한 탓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5월 단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여부, 소송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상태다. 법체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액은 110억원으로 정해지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 배상 액수가 정해질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전당 측은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5월 단체, 지역사회와 갈등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에 이어 현재도 5월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본관 원형 복원 투쟁을 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옛 전남도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화전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청구권 소멸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문화전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관과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헌재소장에 목포 출신 유남석 헌법재판관 내정

문대통령 지명... 국회 여당 뒀 헌법재판관 김기영 판사 추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으로 목포 출신의 유남석(61·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 후보자는 목포 중앙초등학교, 서울 청운중·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 헌재소장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연구관과 수석 부장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해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다섯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유 소장 후보자는 현재 파견 근무 경력과 실력, 인품에 비춰 헌재 소장 후보자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 후보자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또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8일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헌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오는 9월 퇴임하



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바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여당 뒀 헌법재판관에 '소신파 법관'으로 유명한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진선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공포를 통해 추천받은 김 판사를 한 달간 숙의를 거친 끝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판사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소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환호하는 손흥민

29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라트주 보고르 치바논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준결승 한국과 베트남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황의조의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베트남 돌풍 잠재우고 결승 진출

이승우·황의조 골 3대1 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베트남 돌풍을 잠재우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함께 황의조(감바 오사카)가 또 해결사가 됐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29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라트 치바논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트남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준결승에서 멀티골을 넣은 이승우와 9호골에 성공한 황의조를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황의조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이승우와 황희찬(잘츠부르크)을

좌우 날개로 배치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공격을 조율했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김경민(리페링)은 이진현(포항)과 더불어 볼란테로 선발 출전했다.

전반 7분 만에 이승우가 기선을 제압하는 골을 터트렸다. 황희찬이 페널티지역 중앙으로 공을 올렸고 황의조가 넘어지면서 공을 놓쳤지만, 이승우가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이승우가 띄운 분위기에 불을 붙인 건 황의조였다. 전반 28분 손흥민과 황의조가 다시 한번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던 황의조가 공을

띄어줬고, 골키퍼를 마주한 황의조가 오른발로 그대로 골대를 가르면서 2-0을 만들었다. 황의조의 이번 대회 9번째 골이었다.

베트남의 공세를 막으며 2-0으로 전반전을 마감한 한국은 후반 10분 이승우의 멀티골로 사실상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승우는 황희찬이 흘린 공을 잡아 그대로 슈팅을 날리면서 멀티골에 성공했다.

한국은 후반 25분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했지만 남은 시간을 잘 막으면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은 1일 오후 8시 30분에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업환경 지원사업 안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홍닥터가 귀사의 환경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 자율 신청에 의하여 대상기업 선정
 - 환경개선 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 중점관리등급사업장, 최근 2년 이내 환경관계법 위반 사업장 등
- 지원방법** | 교수, 환경전문가 등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인력풀(121명) 활용
- 지원내용** | 환경관련법 행정정보 안내 및 오염저감방안 지도
- 참여방법** | 기술지원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gigec.or.kr)의 기술지원 접수코너 또는 "기술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편, 팩스(062-530-3994), 이메일(gigec@daum.net) 등 편리한 방법으로 기술지원 신청

광주광역시 | 환경부지정/전남대학교 |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